

조선시대 嶺南의 學風과 高靈士林의 動向

설 석 규*

차례

1. 머리말
2. 嶺南士林의 道學的 世界觀 형성
3. 高靈士林의 學風과 傾向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지역학 정립의 일환으로 사상사적 측면에서 조선시대 高靈地方 문화가 갖는 독자적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고령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비옥한 농토로 인해 유학의 학문적 분위기 정착과 재지사족들의 경제·사회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거기다 합천·성주·현풍과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은 다양한 학문을 복합적으로 수용해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그들이 현풍출신으로 합천에 우거한 적이 있는 金宏弼의 도학을 일찍부터 받아들여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배경도 거기에 있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합천에서 발흥한 南冥學을 직접 체득할 뿐만 아니라 鄭仁弘 등과의 교류를 통해 경상우도 사림의 보편적 세계관과 보조를 맞추어 나갔다. 또한 그들은 曹植과 李滉 사이를 왕래하며 배운 鄭述 등을 통해 退溪學의 접목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같이 고령사림들이 남명학의 학풍강화와 더불어 퇴계학과의 융화를 지향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金沔과 吳灑이었다. 고령에 토착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던 김면은 조식을 통해 모순과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是·非분별의 자세를 확립함과 동시에 정인홍·곽재우뿐만 아니라 정구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고령지역 남명학

* 한국국학진흥원 연구교수

의 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오운은 조식에게서 不義와 타협하지 않는 가치분별의 자세를 體得함과 동시에, 이황을 통해 탄력적 현실인식과 대응자세에 대한 철학적 논리를 수용하며 南冥學과 退溪學을 관통하는 복합적 학문체계 수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고령사림은 영남의 사림들이 남명학 또는 퇴계학을 선택하여 학풍강화에 나서는 양상과는 달리, 남명학의 토대를 구축하면서도 퇴계학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조반정 이후 퇴계학과와 남명학파가 동질성을 회복하며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두 학문의 융화를 지향하는 고령사림의 학문적 자세가 개재해 있었다. 고령사림을 주축으로 한 江岸學의 실체와 역사적 위상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주제어

地域學, 道學, 南冥學, 退溪學, 實踐性, 合理性, 江岸學

1. 머리말

일반적으로 21세기 학문분야 가운데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분야로 지방(지역)학이 꼽히고 있다.¹⁾ 이러한 예상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의 폭이 증대된 것을 계기로 지방문화의 正體性 정립을 통한 차별적 독자성을 부각하여 실용화하려는 목적과도 맥이 닿아있다. 그것이 비록 문화적 또는 문화산업적 관점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할지라도, 학술적으로 지방학은 중앙집권 체제와 신분지배 구조에서 소외되었던 지방 및 기층민의 동향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적지 않은 의미를 함유한다고 하겠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의미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중앙 및 지배자 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그 대상을 지방 및 피지배자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학문적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1) 한영우 외, 『21세기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푸른역사, 2005).

그러나 80년대 사회변혁의 과정에서 지방학이 토대를 확립하며 주목받는 학문영역으로 자리 잡은 만큼이나 안고 있는 과제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²⁾ 특히 지방에서 생산된 자료 또는 지방출신 인물을 분석하는데 있어 중앙이나 여타 지방과의 유기적 관계 내지 역학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료나 인물 자체에 매몰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칫 지방의 사례를 전반적 동향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여타 지방과 비교해 배타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감상적 향토애를 자극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경향을 비교할 수 있는 효율적 장치와 기준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 사상적 경향으로부터 시작해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동향에 이르기까지 부문별로 조감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 가운데 다양한 사례연구가 집적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高靈地方 문화의 독자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사상사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오늘날 정당정치가 민주주의 이념을 반영한 것이듯 정치·사회·문화적 제반 현상은 이념을 제공하는 사상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다. 조선왕조는 性理學을 지배이념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조 제반 현상은 성리학 사상에 근거하여 운영되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이 갖는 정체성이나 독자성을 비롯해 역사적 성격이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사상사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현상적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 및 지방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구조적인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고령지방의 문화적 성격을 규정하기

2) 근래 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한국사연구회, 『한국 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경인문화사, 2000 참조).

위한 전단계 작업으로 고령지방 문화적 성격의 일단을 반영하는 조선시대 高靈士林의 사상 및 현실인식과 대응자세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우선 조선시대 性理學이 道學化하는 과정과 더불어 영남지방 사림의 세계관의 확립 및 분화양상을 검토한다. 그런 다음 고령지방 사림들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또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령지방 사림의 역사적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2. 嶺南士林의 道學的 世界觀 형성

조선전기 향촌을 무대로 성장한 사림파는 훈구파가 성리학자로 자처하면 서도 성리학 이념의 현실적용보다는 사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이율배반적 현실을 목격하고는 그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주로 학맥을 연결시킴에 있어 性理學보다는 道學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의식의 저변에는 성리학을 도학과 일치시키는 중국파는 달리, 개념상 차별화를 통해 도덕적인 기준에서 훈구파와 사림파를 구분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우주의 原理와 인간의 心性에 대해 해박한 性理學的 지식인파, 그것을 토대로 한 인품의 수양과 도덕적 행동을 지향하는 道學的 지식인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사림파는 단순한 지식인의 차원을 넘어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안목과 실천적 자세를 갖춘 君子로서의 면모를 확립하는데 학문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³⁾ 곧 그들은 經史의 강론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德性

3) 정재훈, 『조선전기 유교정치사상연구』(태학사, 2005).

을 함양하여 궁극에 至治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이상세계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서 도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성리학이 경전에 내재한 性命義理의 해석에 입각하여 독자적 세계관을 수립함과 동시에 현실대응 방식을 설정하는 修己를 중시한 것과는 달리, 도학은 성리학적 修己를 위한 存心·養性의 구체적 방법과 함께 그것의 현실적용을 통한 至治를 구현하는 실천의 방안으로 차별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중심에는 『小學』을 주축으로 한 수기의 원리를 본격적으로 실천한 金宏弼과, 그것을 현실에 적용해 治人의 단계를 뛰어넘는 至治를 추진한 趙光祖가 있었다. 도학이 성리학의 우주관을 토대로 하면서도 용어의 정의에 있어 일정한 차별성을 갖게 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었다.⁴⁾ 李滉이 김굉필을 명실상부한 도학의 宗匠으로, 조광조를 도학을 倡明한 선구자로 규정한⁵⁾ 것도 그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소학』은 朱熹의 문인인 劉子澄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편찬한 것으로, 격조 높은 인품의 함양보다는 다분히 규범을 중시하는 律身的 修己書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⁶⁾ 따라서 그에 의거해 갖게 되는 사고는 가치분별에 확고하면서도 엄격한 면이 있게 되고, 거기에서 발현되는 행동 역시 분명한 가치기준에 입각한 규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김굉필이 ‘小學童子’로 자처하며 30세가 될 때까지 『소학』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가 이 동안에 그러한 律身に 의한 규범적 수기의 과정을 체득해 가고 있었음을 의

4) 道學은 용어상으로는 흔히 性理學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기는 하지만, 經典의 義理學的 해석에 근거한 客觀知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성리학과는 달리 도학은 그것을 현실에 적용해 道德과 名分의 구현에 비중을 두는 主體的 實踐知를 지향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도학의 存心養性에 의한 實踐躬行이 성리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性理學的 實踐儒學으로 규정되기도 한다(尹絲淳, 『寒暄堂선생의 선비精神』, 『寒暄堂의 生涯와 思想』, 寒暄堂先生記念事業會, 1989).

5) 『退溪集』 권12, 書 答盧仁甫 “示喻金先生廟享事 甚善甚善…… 金先生道學淵源 固非後學所敢測者 然以先朝追獎之意推之 斷然以爲近世道學之宗也”

6) 尹絲淳, 『韓國儒學思想論』, 열음사, 1988.

미하는 것이었다. 그가 韓愈의 글 가운데 “男兒가 죽으면 죽었지 不義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한 구절을 3번씩 읽고서는 눈물을 흘렸다⁷⁾고 하는 일화는 그의 인품의 일단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의리와 명분을 앞세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자세를 확립하려 노력했던 것이다.

김굉필의 교과서적인 律身的 생활은 그의 학풍을 계승한 사림파가 도덕과 의리에 투철한 사고체계와 함께 그에 기반을 둔 善·惡에 대한 확고한 분별의식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증중대 史官은 金滉·趙光祖 등 기묘사림들의 전반적인 행동이 규범을 고수하는 데 치중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김굉필의 학문을 전수한 이래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冠帶도 벗지 않으며 종일토록 단정하게 앉아 賓客을 대하는 것처럼 처신하고 있다⁸⁾는 것이다. 己卯士林派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자지배의 이상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 道學政治를 표방하게 되는 사정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개혁은 선·악, 정·사, 군자·소인을 극단적으로 분별하는 이분법적 논리에 치우쳐 전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에 의해 소인으로 지목된 훈구파의 역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같은 己卯士禍의 굴곡은 뒤에 현실의 모순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초래하여 分化를 촉진하는 매개가 되기도 했다.

도학자로 자부하는 사림세력은 명종대 본격적인 분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한 분화의 이면에는 성리학적 세계관의 현실적용, 즉 훈척정치와 파행적 상황에 대응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방안에 있어 심각한 시각차가 개재되어 있었다. 사림세력이 花潭學을 비롯한 南冥學·退溪學·栗谷學을 모태로 하여 각각 차별화된 독자성을 확보하며 분화하게 되는 사정도 여기에 있었다.⁹⁾

7) 『景賢錄』上, 事實 “喜讀韓昌黎文 每至張中丞傳後敘 巡呼雲曰 南八 男兒死耳 不可爲不義屈 未嘗不三復流涕”

8) 『中宗實錄』권12, 5년 10월 癸巳.

9) 薛錫圭, 「退溪學的 歷史的 位相」, 『퇴계 탄신 5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논문집』, 2001.

徐敬德은 우주가 善·惡을 검비했으나 악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은 氣로 만 충만하여 있다는 세계관을 토대로, 모순된 현실에서 벗어나 스스로 安貧樂道하는 도피적 삶을 선택했다. 李珣도 善의 理는 잠복할 뿐이고 현실에 드러나 작용하는 것은 氣라는 세계관을 확립했으나, 기는 리와의 保合의 관계에서 제어를 받는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모순된 현실을 용인한 가운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개혁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러한 畿湖士林의 氣 중심의 세계관과는 달리, 嶺南의 사림은 전반적으로 理 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영남사림 역시 남명학과와 퇴계학과로 분화하듯이 세계관과 현실대응 자세에 있어 右道士林과 左道士林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慶尙右道の 학풍을 주도한 曹植은 우주가 리와 기의 대립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토대로 純善의 理(君子)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선·악이 혼재하면서도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氣(小人)는 궁극적으로 소멸되어야 할 존재라는 세계관을 확립했다. 이러한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세계관은 그가 “理發爲四端 氣發爲七情(리가 발하여 사단이 되고, 氣가 발하여 칠정이 된다)”¹⁰⁾고 규정한 것에 철학적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는 주희가 이미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사단은 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氣가 발한 것이다)”¹¹⁾고 하여 리·기를 가치론적으로 구분한 것에 연원을 두고 있었다.

그 같은 세계관은 현실을 선·악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악의 소인을 척결하고 선의 군자가 지배하는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사교체계를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었다. 鄭介淸이 “天理의 공은 理에 근본하고, 人欲의 私는 氣에서 생긴다. 리를 위주로 하는 자는 군자가 되고, 氣에 힘쓰는 자는 소인이 된다”¹²⁾고 한 것도 그러한 사교에서 나온 것이었다. 따라서 조식을 중심

10) 『學記類編』上, 心統性情.

11) 『朱子四書語類』 권40, 孟子3 公孫丑中 人皆有不忍人之心章.

으로 한 남명학파의 이분법적 세계관은 주희의 관점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조식은 程子·朱子 이후로 저술이 필요 없게 되었다¹³⁾고 선언하기도 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성리학에 대한 이론적 천착보다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그의 현실인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조식은 性命義理에 대한 공부의 목적은 심오하고 고상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현명한 삶의 지혜를 얻는데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의 보편적인 삶과 괴리된 天理에 대한 탐구는 실질적인 도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 존재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그가 人事上에서 천리를 구해야만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법이라¹⁴⁾는 점을 환기시킨 것도 그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당시의 선비들이 오히려 무지한 사람보다 못한 이유로 마당 청소를 할 때 손으로 물 뿌리고 비질하는 절차도 모르면서 입으로만 이치를 말하는 때문으로 평가했다.¹⁵⁾ 그러한 선비의 행태는 비유컨대 시장에 나가 종일토록 장바닥을 돌아다니며 가격만 흥정할 뿐,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으로 집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¹⁶⁾는 것이다.

조식의 인품이 전반적으로 剛健하면서도 엄숙하고 고결하면서도 직선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선·악의 분별에 투철한 그의 세계관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와 긴밀하게 교류했던 成運은 그의 성품에 대해 천부적 자질이 英明하고 도량이 높았으며, 강하면서도 의연하고 곧으면서도 방정한 품행으로

12) 『愚得錄』 권1, 論學 君子小人相反說.

13) 『南冥集』 권4, 學記類編下 學記跋 “程朱以後 不必著書”

14) 『南冥集』 권5, 附錄 墓碣銘 “今之學者 捨切近趨高遠 爲學初不出事親敬兄悌長慈幼之間 如或不勉於此 而遽欲窮探性命之奧 是不於人事上求天理 終無實得於心 宜深戒之”

15) 『南冥集』 권2, 書 與吳御使書.

16) 『南冥集』 續集, 附錄 行狀(鄭仁弘) “遨遊於通都大市中 金銀珍玩 靡所不有 盡日上下街衢 而談其價 終非自家家裡物 却不如用吾一匹布 買取一尾魚來也 今之學者 高談性理 而無得於己 何以異此”

행동에 법도가 있었다¹⁷⁾고 평가했다. 또한 申季誠은 방정하면서도 엄하고 맑으면서도 준절한 그의 성품은 다른 사람과 許交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¹⁸⁾고 회상하기도 했다. 실제 그는 평소 사람을 대할 때도 善人은 반기는 기색을 보였지만 惡人일 경우 원수를 보듯이 피했다¹⁹⁾고 할 정도로 好·惡의 분명한 태도를 고수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조식의 이러한 자세의 이면에는 군자가 지배하는 이상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 위해 소인은 척결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이분법적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가 敬과 義를 학문의 요체로 삼으면서 엄격한 실천적 자세를 보인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는 “안으로 밝혀야 할 것이 敬이고, 밖으로 단호해야 하는 것이 義”²⁰⁾라며 山天齋 벽에 敬·의 두 글자를 써놓는 한편, 그것을 상징하는 방울과 칼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내외를 관통하는 剛毅·直方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식의 그 같은 자세는 자신의 분명한 出處義理를 확립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는 평소에도 고금의 인물을 평가할 때 먼저 그 出·處를 살핀 후 行事의 득실을 따졌고,²¹⁾ 죽기 전에도 鄭仁弘·金宇顒·鄭述 등 제자들에게 군자의 大節은 오직 출처에 있을 뿐이라²²⁾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것이 그가 평생 동안 분명한 출처의리로 모순된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며 군자로서의 대절을 지킨 것에 자부심을 갖는²³⁾ 배경이 되었다.

17) 『大谷集』 下, 碣銘 南冥先生墓碣 “公天資英達 器宇高嶷 端嚴直方 剛毅精敏 操履果確 動循繩墨 目無淫視 耳無側聽 莊敬之心 恒存乎中 惰慢之容 不形于外”

18) 『松溪實紀』 下, 疏章 請并享新山書院疏 “至於南冥 方嚴清峻 舉一世許人蓋寡”

19) 『南冥集』 別集 권2, 言行總錄.

20) 『南冥集』 권5, 銘 佩劍銘.

21) 『南冥集』 別集 권2, 言行總錄.

22) 『來庵集』 권12, 雜著 南冥先生病時事蹟 “又語仁弘及顒述曰 汝等於出處 粗有見處吾心許也 士君子大節 惟在出處一事而已”

23) 『燃藜室記述』 권11, 明宗朝遺逸 曹植 “吾平生只有一長處 抵死不得苟從也 士君子大節

조식은 대장부란 處하여서는 산과 같이 무겁고 만길 절벽처럼 우뚝 서 있다가도, 出하였을 경우 천 발의 화살로 만 겹의 단단한 벽을 뚫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래야 많은 사업을 베풀 수 있고 생쥐를 잡기 위해 활을 쏘지 않게 되는 법이라²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역시 龍을 잡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犧牲을 잡는 부역에 들어가지 않듯이 王道政治를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은 霸道政治를 하는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법이라²⁵⁾며 스스로 훈척정권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머리가 쪼개지고 사지가 분해되더라도 時流에 따라 변하지 않은 뒤에야 吉人이 될 수 있을 것이라²⁶⁾며 불의와 타협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식의 내외를 관통하는 剛毅直方의 성품과 不義와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出處義理는 16세기 전반 훈척정권에 의해 초래된 제반 극한적 모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南冥學이 여타 학문과 비교해 차별적 독자성을 확보하는 토대가 되었던 것으로, 현실도피의 처사적 삶을 지향한 花潭學이나 적극적인 현실타협의 경향을 보인 栗谷學과 현실대응 자세에 있어 경향상 차이를 보이게 되는 단서도 여기서 확보되고 있었다.

한편 慶尙左道의 학풍을 선도한 李滉은 리와 기의 가치분별 및 대립적 관계를 인정하여 리의 우위를 지향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기를 소멸대상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그가 奇大升과의 논쟁을 통해 “四端 理發而氣隨之 七情 氣發而理乘之(사단은 리가 발하여 기가 따른 것이며, 七情은 기가 발하여 리가 탄 것이다)”²⁷⁾고 하여 理·氣를 상호 따르고 올라 탄 유기적 관계로 설

惟在出處一事而已”

24) 『南冥集』別集 권2, 言行總錄 “先生嘗語宇顛曰 丈夫動止 重如山岳 壁立萬仞 時至而伸 方做出許多事業 千鈞之弩一發 能碎萬重堅壁 固不爲鼯鼠發也”

25) 『南冥集』 권4, 雜著 嚴光論 “屠龍之技 不入於犧庖 佐王之足 不踐於伯都”

26) 『南冥集』 권3, 書 答金仁伯.

명한 것이 그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그의 세계관은 군자의 지배를 보장하면서도 소인을 타도의 대상이 아닌 제어 및 감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현실 대응 자세의 철학적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 그가 훈척정치의 모순된 상황에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出·處를 반복하는 탄력적 면모를 보이게 되는 것도, 정치보복 또는 현실타협의 양극의 여지를 배제하고 합리적인 개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이는 剛·柔를 겸비하면서도 外柔內剛한 자세로 일관한 그의 인품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그의 삶의 철학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자 퇴계학과 현실인식과 대응자세의 모태가 되는 것이기도 했다.²⁸⁾

이황의 철학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純善한 本性에서 찾고 그 도덕적 주체에 능동적 힘을 부여하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배타적이고 대립적이 아닌 합리적이고 순리적 방법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따라서 그의 세계관이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할지라도, 선·악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 기에 대한 리의 상대적 가치를 부각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곧 군자·소인의 분별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만, 군자가 우위에 있으면서 소인을 이끌고 제어할 때 도덕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군자·소인의 극한적 대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치적 혼란 내지는 파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그의 세계관은 리의 가치우위를 보장하는 주희의 관점을 충실하게 수용하면서도, 조식에 의해 확립된 이분법적 시각이 갖는 극단성을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나아가 거기에는 거의 작용성과 보편성을 내세워 현실과의 타협에 비중을 뒀으로써 벗어날 수 있는 도덕적

27) 『退溪書集成』 3冊, 60歲(1560)篇 答奇明彦(論四端七情第二書) 및 『退溪集』 권16, 書答奇明彦.

28) 權延雄·薛錫圭, 「16세기 退溪學派의 君主聖學論」, 『大丘史學』 67, 대구사학회, 2002.

가치의 전도를 경계하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었다.

이황의 그러한 자세는 剛과 柔를 겸비하면서도 外柔內剛한 성품을 성리학의 독자적 세계관에 접목하여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鄭惟一은 그의 성품에 대해 남과의 사이에 간격을 두지 않았으며 별달리 모나지도 않았다고 전제한 뒤, 너그럽되 절제가 있었고 조화가 있되 휩쓸리지 않았으며 엄하면서도 사납지 않아 순수하기가 良金美玉과 같았고 광명정대하기는 青天白日과 같았다²⁹⁾고 회고했다. 또한 李國弼은 그가 남들과 다투지는 않았지만 不仁을 보면 미워하되 성내지 않는 처신의 방법을 가르쳤다고³⁰⁾ 회상했다. 이로써 보건대 이황은 내면적으로는 확고하고도 엄격한 삶의 철학을 확립하면서도, 외면적으로는 온유하고 포용적인 인상을 보여주는 복합적 면모를 구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황의 그 같은 인품은 그의 出處觀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었다. 그는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나아가는 것이 순리이고,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나아가지 않는 것이 순리라³¹⁾며 出·처에도 탄력적 자세를 견지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출처에 대해 관직이 낮을 때 임금이 부르면 달려갔지만 높은 관직에 부를 때는 반드시 사양했고, 마지못해 나아가더라도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굳이 오래 머물러 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출처의 大義를 돌아보지 않고 임금의 은혜를 내세워 물러나지 않는 것은 君臣관계가 道義가 아닌 爵祿으로 맺어진 때문이라고³²⁾ 비판했다. 이에 따라 李德弘도 그가 道에 만족해서 세상을 비루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 출과

29) 『文峯集』 권4, 雜著 退溪先生言行通述.

30) 『退溪全書』言行錄 권2, 類編 起居語默之節 “先生與衆人言 和說無諍 與大夫言 未嘗不正色極言辨之……問見人之不善 輒加矜憐而不怒如何 先生曰 是或一道 惡不仁 亦公天下之心 要當并行爲可耳”

31) 李秉然, 「退溪 李滉의 家系 및 生涯와 現實對應」, 『朝鮮前期 士林派의 現實認識과 對應』, 一潮閣, 1999.

32) 『退溪全書』言行錄 권3, 類編 出處.

처의 사이에서 열심히 노력했다며, 성현의 출처는 時運의 盛衰에 관계되는 것이 인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³³⁾고 옹호하기도 했던 것이다.

결국 이황이 소수의 權奸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는 훈척정권 하에서 進·退를 반복한 것은 내면적으로 확고한 出處大義를 확립하고 있으면서, 군자 및 도덕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건설을 위한 개혁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었던 데 그 배경이 있었다. 이러한 그의 출처관은 사림에 의해 소인으로 지목된 척신을 척결의 대상이 아닌 제어의 대상으로 간주한 데서 나온 것으로, 이는 다시 그가 확립한 복합적 세계관에서 연원하는 것이라 하겠다. 리·기의 가치론적 분별은 불가피하지만 기가 리를 따르거나 통제를 받게 될 때 리의 가치우위가 보장된 가운데 리·기의 유기적 관계가 확립될 수 있는 것으로, 소인이 군자를 따르고 군자에 의해 제어를 받게 될 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도덕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조식과 이황은 선·악, 군자·소인의 분별을 우선하는 세계관을 공통적으로 견지하며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현실의 모순에 대응하는 실천의 방법에 있어서는 일정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었던 셈이다. 곧 조식이 군자지배의 이상사회 건설을 목표로 이분법적 가치분별을 지향하며 모순과 타협하지 않은 채 강경일변도의 자세로 일관한 데 비해, 이황은 모순의 타파보다는 제어를 통해 순리적 방법으로 극복하려는 탄력적인 현실대응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훈척정권에 대해 다 같이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 등 현실대응 자세에 차별적 경향을 보이게 되는 사정도 여기에 있었다.

이것이 南冥學과 退溪學의 차별화된 학문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들의 학풍을 계승한 사림들이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분화하게 되는 것도 그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남명학과 퇴계학파가 선조대 훈척정치

33) 『良齋集』 권7, 雜著 與李浚問答.

잔재청산에 공감하며 거기에 소극적인 西人세력에 대응해 東人의 정치세력으로 결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치적 현안에 견해차를 드러내면서 北人과 南人으로 분열하게 되는 것도 그러한 배경이 작용한 결과였다.

그 같은 상황은 道學을 매개로 결속한 가운데 훈척정권에 공동으로 대응해 왔던 영남사람에게 곤혹스런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물론 영남사람의 분열은 조식과 이황의 세계관을 반영한 학파의 정치적 입장차가 개재해 있는 것이지만, 그들은 學派 및 政派의 분열을 넘어 대립의 상황에까지 이르리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명학과 퇴계학이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현실대응 방식의 차이로 인해 대립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되자, 그들은 이를 수습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한 역할은 두 사람의 문하를 왕래했던 인물들뿐만 아니라 퇴계학과와 남명학과가 낙동강을 경계로 각각 左·右로 분포된 점을 감안할 때 그 접점에 위치한 지역의 사람들에게서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었다. 낙동강의 右岸에 자리 잡고 있는 고령지역 사람들의 역할이 부각될 수 있는 여지도 여기에서 마련되었다.

3. 高靈士林의 學風과 傾向

1) 高靈士林의 在地的 기반

李重煥은 그의 저서 『擇里誌』에서,

甘泉의 남쪽에 禪石山(白馬山)이 있다. 산의 남쪽에 星州·高靈이 있는데, 고령은 옛날 가야국이다. 그 남쪽에는 다시 陝川이 있는데, 가야국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세 고을의 논은 영남에서 가장 기름져서 씨를 조금만 뿌려도 수확이 많다. 그래서 토착민들이 모두 부유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³⁴⁾

고 하여 성주·합천과 함께 고령을 영남에서 가장 풍요한 지역으로 꼽았다. 조선후기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이 보통 벼 한 말을 심으면 80斗 내외의 소출을 낼 수 있는 것과 비교해 이곳은 많게는 140斗, 적게는 100斗를 추수할 수 있을 정도로 토질이 비옥하다³⁵⁾는 것이다.

고령의 그 같은 풍요한 경제적 조건은 가야산 동편 성주쪽에서 발원한 伽川과 서편 합천쪽에서 흐르는 伽川이 만나 龍潭川을 이루면서 넓은 평야를 조성한 데다, 현풍과의 경계지점을 흐르는 開山江이 양질의 土砂의 보급과 함께 灌溉를 원활하게 해주는 지리적 환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다 고령은 낙동강을 경계로 하여 東·西와 南·北을 연결하는 접점에 위치한 입지적 조건 때문에, 오래 전부터 전략적 거점으로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세력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찍이 大伽倻이 이곳을 배경으로 하여 서남부 지역을 무대로 城邑國家에서 聯盟王國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것도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나 562년(진흥왕 23) 대가야가 新羅에 의해 멸망하여 복속됨으로써 고령의 정치·경제적 위상은 급격하게 저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은 현풍과 합천을 연결고리로 하여 각축을 벌이는 신라와 백제에게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상실되지는 않았다.

대가야의 멸망을 계기로 신라의 영역에 편입된 고령은 伽倻郡으로 영역이 결정되는데 이어 경덕왕대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과정에서 高靈郡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계기로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 초에 들어와 고령은 그 범주가 더욱 축소되어 독자적 郡·縣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채 京山(星州)府의 屬縣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고려시대 主縣·屬縣 체제가 官權이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 점을 감안할 때,³⁶⁾ 고령이 속

34) 『擇里誌』, 八道叢論 慶尙道.

35) 『擇里誌』, 卜居叢論 生利.

현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新羅 下代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이 지역에는 관권이 미치지 못하는 강력한 豪族勢力이 독자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고령은 중앙의 직접 지배권역에 들어가지 못한 채 간접적인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상황은 고려전기에 그대로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武臣執權期인 명종대 들어와 監務가 파견되면서 점차 해소되는 조짐을 보였지만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고령은 조선왕조가 지방의 효율적 통치를 위해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監務가 縣監으로 명칭만 바뀌는 변화만 있었을 뿐 蔭職 중6품의 수령이 파견되는 영성한 단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령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조건과 더불어 사방으로 연결되는 교통상의 편의 때문에 일찍부터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 김종직의 제자인 曹偉는 고령의 客館 重修記文을 지으면서,

이 縣(고령)은 옛날 신라 때 대가야 5백여 년 동안이나 나라를 세웠던 곳으로, 山水의 훌륭한 영남에서 으뜸이다. 고려 초부터 격을 낮춰 작은 현이 되었고, 땅이 좁은 것이 검은 사마귀와 같게 되었다. 그래서 정치는 거칠어지고 백성은 쇠잔해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관청이 얇고 누추해도 괴이할 것이 없었는데, 원님이 1백년이나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자 가야산의 구름과 사물들도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것이 어찌 이 고을의 행운이자 백성의 복이 아니겠는가.³⁷⁾

고 하여 고령의 山水 또한 영남에서 최고라고 칭찬한 바가 있다. 이러한 빼어난 자연환경은 고령에 유학자들의 발걸음을 멈추도록 함으로써 자연 유학의 진흥과 더불어 문풍의 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되었다.

36) 李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민음사, 1989.

3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高靈縣 宮室.

崔致遠이 海印寺로 들어가는 길에 머물면서 揖仙臺와 孤雲亭을 지어 노닐었을 뿐만 아니라, 碧松亭을 重建할 때 上樑文을 쓴 것으로 전해지는 내용은 고령의 자연환경과 그와의 관계를 유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뒤에도 鄭汝昌·金宏弼 등이 벽송정을 찾아 시를 남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오래 전부터 이곳을 찾는 유학자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사정은 이곳에 터전을 마련했던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름다운 화초가 무성하고 시냇물이 맑고 잔잔하여 손님들의 정신을 맑고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여 이름 붙은 快賓亭을 비롯해, 孝子 朴潤이 건립한 竹淵亭, 朴廷播이 지은 鶴巖亭, 正郎을 지낸 金守雍이 세운 香林亭과, 縣監 李衡中이 창건한 開湖亭이나 尹鳳五의 시가 걸려 있는 披香亭 등이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³⁸⁾ 그들은 여기에서 자연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관을 확립함과 동시에 道學을 講磨하며 서로 道義의 관계를 맺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이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고령에 재지적 기반을 갖춘 세력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가운데 하나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고령에 토착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던 土姓은 申·朴·金·李·兪·白·鄭氏의 7개 성씨와, 續姓으로는 漆原에서 온 尹氏와 鄉吏職을 세습하고 있던 趙氏의 2개 성씨를 소개하고 있다.³⁹⁾ 당시 郡·縣의 토성이 평균 3, 4개 정도에 불과했던 점과 고령이 監務가 파견되는 小邑으로서 열악한 정치·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⁴⁰⁾ 때 7개의 토성은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수에 해당한다. 이는 결국 고려후기 武臣의 政變에 이은 崔氏 武人政權의 대두에 따른 정치적 모순과 몽골과의 전쟁에 이은

38) 『慶尙道邑誌』 17冊, 高靈縣邑誌 樓亭.

39) 『世宗實錄地理志』慶尙道, 尙州牧 高靈縣.

40)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출판부, 1984.

불평등 국제관계의 형성으로 인한 민족적 모순을 목격하면서 낙향한 在京官인들이 이곳에 다수 정착하면서 초래된 현상으로 판단된다. 고려중기 參知政事를 역임한 申淑이 李資謙의 난과 妙淸의 난을 거친 뒤 스스로 관직을 포기하고 고령에서 기반을 마련한 것이 그러한 분위기의 일단을 전해주고 있다.

고령의 토성가문 역시 고려 말 대부분 토성들이 보여주는 경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향촌에서 鄕吏로 활동하며 재지적 기반을 발판으로 토착세력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다 몽골간섭이래 그들은 사대부계층으로 성장하며 전통적인 門閥貴族과는 여러 면에서 대비되는 특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들은 왕조의 교체기에 더 이상 향리로 머물지 않고 科業이나 軍功 등 본인의 능력으로 출세를 지향하거나, 新儒學 곧 性理學의 지식을 수용한 가운데 家業으로 내려오는 토착적 경제기반을 배경으로 在地의 중소지주층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도 했다.

조선왕조가 건국된 뒤 士族으로 성장한 향촌의 재지주층들은 훈구세력이 부국강병을 앞세워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확립을 위한 통치규범의 정비를 추진하는데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향촌사대부의 자율적 책임을 전제로 한 각종 공동체 조직의 자치적 운영으로 사족 중심의 지배체제의 확립을 보장받으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또한 그들은 훈구세력이 관직을 배경으로 科田法 체제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며 기득권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서해연안 지역의 활발한 간석지[堰田] 개발로 경제적 부를 축적한 것과는 달리, 향촌에서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川防(淤)과 같은 수리수단을 활용해 連作常耕이 가능한 새로운 農法을 개발함으로써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대해 나갔다.⁴¹⁾

이러한 점에서 다수의 강을 끼고 있어 토지가 비옥한 데다 관개가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안고 있던⁴²⁾ 高靈의 재지사족들이 경제적 부의 축적을 통한

41) 李泰鎮, 『朝鮮儒教 社會史論』, 지식산업사, 1998.

재지적 기반확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실제 鄭麟趾도 고령의 풍속을 소개하는 가운데 “힘써 농사를 지으며 부지런히 재배하는데, 여기에는 물을 끌어 담아두는 못을 위한 제방이 있다”⁴³⁾고 전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金沔을 주축으로 한 고령사람이 鄭仁弘·郭再祐 의병과 함께 전란극복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경제적 토대는 이미 여기에서 마련되고 있었던 셈이다.⁴⁴⁾

그와 동시에 그들은 향촌의 유력자들이 지방관의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儒鄉所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나섬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도 했다. 고령을 비롯한 영남의 향촌사대부들이 여타 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士林派의 형성을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같은 발빠른 행보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향촌의 사대부세력이 중앙정계에 진출해 훈구파에 대응한 사림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은 성종 초 金宗直 등이 등용되면서부터였다. 이는 그들이 일찍부터 재지적 기반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한 소산이었다. 특히 김종직의 진출에는 고령 토성의 후예로서 당시 在京官人으로 활동하고 있던 申叔舟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신숙주는 김종직을 무척 아꼈으며, 김종직 또한 신숙주를 존경했다고 한다. 신숙주의 손자 申用漚가 김종직의 문인이 된 데 이어, 또 다른 손자 申用漚가 김종직의 제자로 고령출신인 朴闇을 사위로 맞아들이게 되는 배경도⁴⁵⁾ 그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고령사람의 전반적인 경향은 官界로 진출하기보다 향촌에서 토착적 기반을 배경으로 교유를 통한 횡적 연대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

42) 『嶺南誌』 권14, 高靈郡 地勢及位置.

43) 『慶尙道邑誌』 17冊, 高靈縣邑誌 風俗, “勤稼穡(鄭麟趾詩 力農勤稼穡 引水有陂塘)”

44)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도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사림의 의병활동에 대하여는 金康植, 『壬辰倭亂과 慶尙右道の 義兵運動』, 해안, 2001 참조.

45)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출판부, 1984.

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당시 영남지역 사림의 일반적 경향이기도 했지만, 여기에는 그들의 풍부한 경제적 기반과 더불어 지역간 사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입지적 조건도 작용하고 있었다. 고령은 동쪽으로 玄風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데다, 서쪽으로는 합천의 冶爐와 맞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星州와 연결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은 고령이 그들 지역과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사회적인 연대뿐만 아니라 학문 및 문화적으로 연결되는 고리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의 사림들이 현풍출신으로 한 때 처가가 있는 합천 冶爐에 거주하면서 鄭汝昌·金駟孫과 학문적 교감을 나누었던 金宏弼을 통해 道學의 실천적 원리를 습득하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바라고 하겠다. 이와 아울러 그들은 합천 三嘉출신 曹植과 아로출신 鄭仁弘으로 이어지는 남명학뿐만 아니라 조식·이황 사이를 왕래하던 星州출신 金宇顯·鄭述 등을 통해 퇴계학까지도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려 하는 것도 추측이 가능한 일이다. 고령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강직하여 武人의 기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淳朴한 측면도 있다고 복합적으로 평가된 배경도 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東國輿地勝覽』에는 고령의 풍속에 대해 '俗尙強武(풍속이 굳세고 용맹한 것을 숭상한다)'고 하고, 또 '勤稼穡(농사일에 부지런하다)'고만 전하고 있다.⁴⁶⁾ 그러나 『慶尙道邑誌』에서는 여기에 추가하여 金宗直의 詩 가운데 "풍속이 순박하여 농부들은 조용하게 지낸다"고 한 것에 근거해 '俗尙淳朴(풍속이 인정이 많고 소박한 것을 숭상한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했다.⁴⁷⁾

고령에 대한 이러한 복합적 평가를 통해서 볼 때 그들의 기질적 경향은 우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하면서도 직선적 면모가 두드러지는 측면이

4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高靈縣 風俗.

47) 『慶尙道邑誌』 17冊, 高靈縣邑誌 風俗.

있다고 하겠다. 이곳출신 朴之順이 고려후기 무공으로 大將軍이 된 것도 그들의 그 같은 기질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과 명분을 우선하며 善·惡, 正·邪 분별의 확고한 가치관을 수립한 가운데 모순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실천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金宗直을 거쳐 金宏弼에 의해 정립된 道學이 曹植에 의해 경상우도에 구현되는 南冥學의 실천적 道學이 고려사람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도 고려의 순박한 풍속이 부각되고 있는 사실은 善·惡, 正·邪 분별의 가치관을 토대로 모순된 현실에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실천에 있어서는 剛·柔의 복합적 면모를 보이며 탄력적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李滉을 중심으로 한 경상좌도 退溪學의 논리적 道學과 만날 수 있는 여건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영남지방의 학풍이 “上道는 李滉이 있어 學問으로 서로 받들고, 下道는 曹植이 있어 節義로 서로 높인다”⁴⁸⁾는 차별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고려에는 남명학파의 節義와 퇴계학파의 學問이 함께 구현되는 분위기가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려 말 宋寅이 鄭夢周·李穡·李崇仁 등과 道義의 관계를 유지하다 조선 왕조가 건국되자 杜門洞에서 저항한 뒤 고려에 유배된 것을 계기로 정착한 것은 이 지역 절의의 정신을 고착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조선왕조에 들어와 申德麟—申包翹—申墻—申叔舟로 이어지는 申氏 가문 일파를 비롯해 중앙관인으로 진출한 고려출신 인물들은 재지적 기반을 발판으로 사림파의 정치적 성장에 기여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申從濩와 함께 金宗直의 문인으로서 洪彦忠·李荇 등 사림파와 교유하다 甲子士禍 당시 被禍된 朴闇이나, 金宗直과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兪好仁 형제 등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봉화출신으로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한 琴柔

48) 『宣祖實錄』 권142, 34년 10월 己丑.

가 만년에 이곳에 寓居하게 되는 것도 당시 고령에 대한 사림파의 호감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고령에는 남명학과 퇴계학이 분화하는 양상에도 불구하고 曹植과 교유한 鄭師賢·朴澤뿐만 아니라 조식의 문인인 李貞春을 비롯해 이황의 문인인 金守雍 등을 배출하며 공존의 여지를 확보해가고 있기도 했다.⁴⁹⁾ 명종 20년(1565) 조식과 이황의 문인인 金宇宏이 疏頭가 되고 영남 42개 郡縣의 유생들이 참여한 전후 22차례에 걸친 ‘請斬普雨疏’를 올릴 당시 고령사림이 그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⁵⁰⁾ 것도 전혀 우연이 아니라 하겠다. 이같이 고령지역에서 남명학과 퇴계학의 독자적 경향을 반영하면서도 공존의 방안을 모색한 대표적 인물이 바로 松庵 金沔과 竹牖 吳灑이었다. 그러면 그들의 학문경향과 현실대응 자세를 통해 고령지역 사림의 학문적 동향과 성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한다.⁵¹⁾

49) 이상의 인물정보는 『慶尙道邑誌』 17冊, 高靈縣邑誌 人物條를 참조함.

50) 당시 여기에 참여한 유생들의 거주지를 보면 尙州·加恩·榮川·咸昌·龍宮·醴泉·清道·知禮·大丘·星州·開寧·善山·三嘉·固城·慶山·高靈·靈山·玄風·陝川·金山·豐基·居昌·咸安·柒原·安陰·宜寧·金海·昌原·慶州·山陰·聞慶·蔚山·彦陽·昌寧·丹城·軍威·咸陽·青松·東萊·梁山·晉州·草溪 등 42개 군현인 것으로 나타난다(『開庵集』 권3, 雜著 西行日記).

51) 김면의 가문은 일찍부터 고령에 토착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 고령의 土姓 吏族이었던 그의 가문은 고려 말 土族으로 성장한 이래 고령에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오운은 咸安에서 태어나 宜寧에서 거주하다 榮州에서 말년을 보냄으로써 고령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의 가문이 고령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은 그의 長子 吳汝樞이 이곳의 土姓으로서 전통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있던 朴廷琬의 딸과 결혼하면서부터였다. 이후 그의 가문은 비록 손녀가 정인홍의 손자 鄭稜과 결혼한 때문에 인조대 광해군 복辟 모의사건에 연루되는 등 기복을 겪기는 하지만, 다양한 혈연적 유대관계를 통해 고령을 무대로 확고한 재지적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따라서 그가 고령과 직접적 관련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학풍이 고령지역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高靈士林의 학문 경향

(1) 金沔의 南冥學 學統強化

金沔은 鄭仁弘·郭再祐와 함께 임진왜란 당시 '義兵三將⁵²⁾으로서 전란극복을 주도한 남명학파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중종 36년(1541) 高靈縣 量田村에서 태어난 그는 5, 6세 때 이미 成人으로서의 氣稟을 보여주었으며, 점차 장성해가면서 嚴毅·俊整·慷慨의 면모를 토대로 하여 大節의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그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科擧에는 관심을 버리고 오로지 經傳을 읽으며 깊은 思惟에 젖어들곤 했다.⁵³⁾

김면은 20세가 되던 해인 1560년(명종 15)부터 曹植의 문하를 출입하면서 본격적인 성리학적 세계관을 전수받았다. 특히 그는 『二程全書』를 깊이 탐독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일을 처리할 때 程顥·程頤의 자세를 표준으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朴實의 공부에 심혈을 기울였다.⁵⁴⁾ 그는 24세 때 자신이 저술한 『律禮誌』 7편을 조식에게 보여주며 수정을 부탁했고, 27세 때에는 德山에 가 齋室 上樑文을 얻어오기도 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이듬해 재실이 완공될 즈음 조식이 직접 방문하여 그에게 '松菴'의 齋號를 써주기도 했다⁵⁵⁾고 한다. 實錄에 수록된 그의 卒記에,

김면은 文士로서 義兵을 일으켜 여러 번 싸워 공이 있었으므로, 발탁하여 兵使로 삼아 여러 군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善山으로 진격하니 주둔한 적이 날마다 조금씩 퇴각하여 위축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전염병으로 죽었다. 김면은 군사

- 52) 『茅谿日記』, 義兵三將事蹟. 여기에는 鄭仁弘·金沔·郭再祐뿐만 아니라 李亨·張應麟·李大期·全致遠의 事蹟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三將은 앞의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鄭鉉在, 「解題」, 『茅溪先生日記』(『경남문화연구』 17호, 1995 별책) 참조).
- 53) 『松菴實紀』 下 附錄, 家狀 “年五六歲 已有成人器度…… 年漸長成 嚴毅俊整慷慨有大節 不屑爲擧子業 聖賢經傳 見輒默究”
- 54) 위와 같음 “先生見二程全書 深加玩索 反求於己曰 行已處事 必於此標準 則可以無大過矣 自是凡所以持身者一遵 而無違焉 遂悠然退讓君子 務在朴實工夫”
- 55) 朴洪甲, 「松菴 金沔의 생애와 활동기반」, 『松菴 金沔의 生涯와 義兵活動』, 고령군·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2005.

를 일으켰을 때부터 陣營을 떠나지 않았는데, 처자가 가까운 지역에서 떠돌며 굶주려도 한 번도 서로 만나보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충성을 칭송하였다.⁵⁶⁾

고 평가되듯이 그가 文士로서 의병을 규합하여 戰場에서 사망할 때까지 많은 전공을 세우게 되는 것도 그러한 학문적 배경이 작용한 결과였다.

그것은 또한 김면이 고령에서 재지적 기반을 확보한 가운데 합천출신 鄭仁弘이나 현풍출신 郭再祐뿐만 아니라 성주출신 鄭速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는 정인홍과 평소의 情誼가 형제와 같은⁵⁷⁾ 데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모집해 적을 토멸하자는 정인홍의 제안을 받아들여 募兵에 나서게 될⁵⁸⁾ 정도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정인홍과 17살의 나이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친구 사이로 알려질 만큼⁵⁹⁾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곽재우는 김면의 인품에 대해 엄숙하면서도 의연한 기질을 갖고 있는 데다 행동도 차분한 면모가 있어 왜적을 소탕하고 영남을 보전할 수 있는 인물이라⁶⁰⁾ 평가하며 신뢰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그들의 관계는 김면과 道義之交의 막역한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함께 性理學을 강론하기도 했던 鄭速가⁶¹⁾ 1579년(선조 12) 伽倻山을 유람하며 전한 다음의 일기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學士臺를 지나 海印寺를 거쳐 知足菴에 이르렀다. 鄭德遠(仁弘) · 李季郁(?) · 金志海(沔) · 金渾源(?)이 서로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각기 별도로 살아온 것이 3, 4

56) 『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12월 丁亥.

57) 『宣祖修正實錄』 권36, 35년 2월 甲午 “故兵使金沔 仁弘平日 情若兄弟”

58) 『松菴實紀』中, 倡義事蹟 壬癸日記, “前佐郎金公沔 舉義討賊 公高靈人 初聞大駕西巡 卽欲奔隨 鄭仁弘欲與公 舉義討賊 公乃聚兵于高靈”.

59) 『光海君日記』 권114, 9년 4월 辛酉 “再祐 以曹植女婿 與金宇顯鄭仁弘爲友”

60) 『松菴實紀』中, 倡義事蹟 附李松巖(魯)龍蛇錄中所記, “再祐退謂左右曰 吾視金大將 氣度嚴毅 舉止安閑 掃滅凶賊 保全嶺南者 必此人也”.

61) 『松菴實紀』下 附錄, 家狀, “及至弱冠 師事曹南冥先生 又與寒岡鄭先生速 爲道義之交 講論性理 切切偲偲”.

년이나 되고 가까워야 1년이며 季郁만이 한 달 만에 보는 것이다. 산 속에서 서로 만나니 반가운 기색들이 넘쳐 서로 손을 움켜잡았다. 談笑와 講說을 하면서 틈틈이 눈을 들어 보니 오로지 구름 덮인 산과 단풍나무·노송나무만 보일 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渾源과 志海가 각각 술을 내어 밤이 깊도록 술잔을 기울이다 각각 나누어서 잠자리에 들었다.⁶²⁾

이 같이 김면은 정인홍·곽재우와 함께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까지 同門의 관계를 매개로 하여 동질적 세계관을 형성한 가운데 긴밀한 교유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관계는 고령사림의 학문적 풍조가 일차적으로 남명학을 토대로 하는 배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상우도 지역 사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들이 전란이 발발하자 倡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속하게 의병을 일으킴과 동시에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방어로 왜적을 격퇴함으로써 국난극복에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1592년(선조 25) 왜의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은 그동안 독자적인 현실인식 체계를 바탕으로 대응방식을 모색하던 사림세력의 시험무대가 되었다. 그들은 國難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별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남명학파의 경우는 조식의 확고한 善·惡 分別의 자세를 계승하여 왜를 소멸되어야 할 惡으로 규정하며 적극적인 대응자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곧바로 그들이 義兵을 조직해 항전을 주도한 것이 그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그들의 의병활동의 저변에는 朝鮮을 君子로, 倭를 小人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적 分別을 전제로 소인인 왜와 타협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다.

왜적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김면은 곧바로 법을 세워 “사람마다 奴僕 3인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면 극형에 처한다”⁶³⁾고 선언하며 의병에의 적극

62) 『寒岡集』 권9, 雜著 遊伽椰山錄 9월 16일.

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또한 그는 軍令을 정언하면서도 준절하게 하고 號令을 분명하면서도 엄숙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사사로이 간섭할 수 없도록 하였다⁶⁴⁾고 평가될 정도로 자신의 의병을 엄중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지휘했다. 이러한 그의 군사운용 방식은 확고한 국가의식을 토대로 한 이분법적이고도 직선적인 학문적 경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의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는 독선적이고도 편협한 것으로 비쳐지기도 함으로써 적지 않은 오해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가 招諭使 金誠一의 지휘권 내에 있을 때 깊은 신뢰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각차를 드러내며 자주 대립함으로써 한 때 편벽되고 막힌 인품의 소유자로서 비판의 대상이 된 것도⁶⁵⁾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가 鄭仁弘·郭再祐와 함께 연합전선을 형성해 왜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발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郭再祐가 宜寧에 주둔한 가운데 咸安·宜寧·靈山을 통하는 길을 차단해 경상우도의 남부권을 방어하고, 金沔이 居昌을 거점으로 하여 知醴·金山으로 통하는 길을 막으며 중부권을 방어함과 동시에, 鄭仁弘이 星州에 주둔하며 高靈·陝川을 지나는 길을 차단해 북부권을 방어함으로써⁶⁶⁾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왜적들이 전라도로 향하는 길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그들의 연대에 따른 소산이라 하겠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김면은 郭再祐가 金晔와 극한적 대립을 벌일 당시 중재에 나섬으로써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63) 『大東野乘』 권68, 混定編錄 7 前直長 金錫光의 疏 참조.

64) 『茅谿日記』, 義兵三將事蹟, “軍令峻整 號令明肅 人莫能干以私”.

65) 『松菴實紀』中, 倡義事蹟 附李松巖(魯)龍蛇錄中所記, “金沔自爲義兵將時 雖聽鶴峰節度而號令之間 或多頽頹 鶴峰嘗謂 沔性偏執滯 頗有不謙之意 屢形言色 人或疑其兩不相好 至是悼死 褒啓激切”.

66) 『大東野乘』 권26, 亂中雜錄 2, 壬辰年 8월 3일.

했다. 경상감사 김수는 왜적이 상륙하여 동래성과 부산성을 함락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적극적인 방어에 계책을 마련하지 않고 主鎭을 떠나 적진에서 수백리 떨어진 鼎津으로 옮겼다가 勤王을 이유로 피신해 버리고 말았다. 이로 인해 金海가 함락된데 이어 영남의 모든 방어망이 차례로 무너지게 되었다.

여기에 본격적인 광재우는 스스로 의병을 일으키는 한편, 김수를 자신의 安危만을 생각해 나라를 저버린 ‘亡國의 大賊’으로 규정하면서 嶺南의 각지에 通文을 보내 그를 죽여 春秋의 大義로 一罰百戒해야 한다⁶⁷⁾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수가 순찰사로 부임하자 그에게도 격문을 보내 迎倭·喜敗·忘恩·不孝·欺世·無恥·不測·忌成의 8가지 罪目을 제시하며 휘하의 軍官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목을 베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⁶⁸⁾ 이에 대응해 김수도 광재우를 ‘逆賊’으로 몰며 그를 체포하여 감금해야 한다고 김성일에게 건의했다.⁶⁹⁾ 이같이 사태가 확대되어 견잡을 수 없이 전개되자 金誠一이 광재우를 불러 의령의 遊擊將으로 임명하는 한편 사태의 전말과 함께 그를 옹호하는 내용의 狀啓를 조정에 올리게 되었다.⁷⁰⁾

宣祖도 그들의 대립에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며 광재우가 자신의 兵勢를 믿고 김수를 죽이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정의 논의에서 김수를 遞差하거나 광재우를 譴責하기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尹根壽의 제안에 따라 김성일로 하여금 禍福으로 타이르도록 결정했다.⁷¹⁾ 이에 따라 김성일은 광재우에게 의병으로서 큰 공을 눈앞에 두고 隕身滅族의 위험을 자초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⁷²⁾ 한편, 김수 역시 광재우와 막역한 관계인 金沔에

67) 『忘憂集』 권1, 文 通諭道內列邑文, “金粹乃亡國之一大賊也 以春秋之義論之 則人人得以誅之”.

68) 『忘憂集』 권1, 文 檄巡察使金粹文.

69) 『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6월 己丑.

70) 『宣祖實錄』 권27, 25년 6월 丙辰.

71) 『宣祖實錄』 권29, 25년 8월 甲午.

72) 『鶴峰集』 권4, 書 與義兵將郭再祐, “方伯雖實有罪 自有朝廷處置 非道民所當下手 豈料

게 그를 설득해줄 것을 부탁했다.⁷³⁾ 김면은 곽재우에게 편지로 白面書生이 조정의 명령 없이 의거했을 때 우려되는 것은 義氣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處事의 정당성을 잃는 것이라 전제하면서, 일을 그르친 사람의 죄를 물어 목을 벨 경우 義氣는 당당해질 수 있을지 모르나 順理로 공적을 세우는 일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라⁷⁴⁾며 김수에 대한 공세를 철회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김성일과 김면의 설득에 의해 곽재우도 자신의 주장을 접고 김수 역시 왕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곽재우의 功績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⁷⁵⁾ 이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이는 결국 不義를 용서하지 않는 곽재우의 春秋大義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⁷⁶⁾ 거기에서 파생된 과격한 측면은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성일과 함께 同門 金沔이 義氣보다는 處事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만류함으로써 순리적으로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란 중 김면과 정인홍 사이의 不和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들의 불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말은 제대로 드러나는 바가 없지만, 군사의 동원을 촉구한 김면에 대해 정인홍이 신중을 기하며 반대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⁷⁾ 이는 아마 鄭仁弘軍의 假將 孫仁甲이 暹州에서 적을 치기 위해 射軍을 요청한 데 대해 김면이 거절한 데 이어, 金山·知禮의 왜적을 막기 위해 牛馬嶺을 막으라는 초유사 김성일의 지시에 정인홍이 김면의 동태를 살피며 움직이지 않은 데 대한 상호의

義將生忠義之門 舉討賊之義 大功將成 而自陷於隕身滅族之地耶”.

73) 『大東野乘』 권26, 亂中雜錄1 壬辰年 6월 19일.

74) 『松菴實紀』上 遺稿, 書 與郭忘憂(再祐)書, “但左右非朝廷命令 而白面義舉 所患者 不在義氣之不足 惟恐處事之失宜也... 若以誤事之人爲可罪 而有所臬示 則義氣堂堂則有之 而順理濟功之道 恐有所未盡也”.

75) 『宣祖實錄』 권32, 25년 11월 辛巳.

76) 崔錫起, 「忘憂堂 郭再祐의 節義精神」, 『南冥學研究』 6(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6).

77) 『宣祖修正實錄』 권36, 35년 2월 甲午.

반감과, 78) 星山城 전투에서 두 사람의 연합작전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기다 김면이 陣中에서 사망한 다음 정인홍이 찾아가 뺏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왜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정인홍측의 해명에도 79) 불구하고 이 문제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화에는 물론 김면이 객재우가 김수와 대립한 것에 대해 달갑게 여기지 않음과 동시에 정인홍의 의병이 官軍의 제어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것에서 80) 알 수 있듯이, 전쟁수행과 관련하여 그들 사이에 야기된 시각차가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불편한 관계가 상호 편지를 통해서나 연합작전 등을 통해 충분히 해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것은 그들의 추종세력의 역학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점은 정인홍에 대한 다음의 평가에서도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정인홍은 南冥 曹植의 高弟이다. 어려서부터 林下에서 독서하여 氣節이 있었다... 뜻을 잃은 부박하고 잡된 무리들이 인홍의 세력에 의지하여 출세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연이어 그의 집으로 모여들어 觀客이 되니, 모든 遊說가 인홍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는 것이 없었다. 영남으로부터 홀로 도성에 처음 들어왔으니 世情의 好·惡와 時議의 便·否를 어떻게 사실대로 분명히 알아서 의심하지 않겠는가. 이에 의심은 더욱 깊어지고 憤恨은 계속 생겨나 당대의 士類들과 점점 대립을 이루어 큰 유감을 품고 돌아갔다. 대체로 그를 그르친 자는 그릇된 그의 문객들이며, 그 문객들이 그른 줄 모르고 그들을 믿은 것은 바로 인홍이 편협하고 밝지 못한 소치이다. 81)

78) 『大東野乘』 권26, 亂中雜錄 1 壬辰年 6월 17일·19일.

79) 『宣祖實錄』 권154, 35년 9월 甲申.

80) 『大東野乘』 권51, 寄齋史草 壬辰日錄 4, 9월.

81) 『宣祖實錄』 권154, 35년 9월 甲辰.

따라서 정인홍·김면 사이에서 생겨난 오해는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의 경쟁심리가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그들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전쟁 당시 정인홍의 門生들로 주축을 이룬 參謀들이 그들 스승의 공적을 제일 높게 부각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김면의 공적을 왜곡하거나 폄하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인홍이 김면에게 글을 보내 모든 일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한 것에서도⁸²⁾ 뒷받침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신뢰와 협조관계가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국난극복의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史官이,

임진왜란 때 倡義하여 절개를 세운 사람이 없지 않다. 鄭仁弘·金沔·郭再祐는 嶺南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金千鎰·高敬命·趙憲은 兩湖에서 절개에 죽었다. 그들의 功烈은 너무도 찬란하고 열렬하여 충의의 기개를 고취시킬 수 있음은 물론 뒷날 나약한 사람을 굳세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들의 이름을 거두어 景鍾에 새겨 후세에 보인다면 明教에 관계되는 바가 어찌 적다고 할 수 있겠는가.⁸³⁾

고 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김면이 전란 중에 사망하기는 했지만 그의 성공적인 의병활동은 남명학과 뿐만 아니라 고령지역 사림의 위상을 강화하는 촉매가 되었다. 고령사림들은 남명학을 발판으로 曹植의 실천적 精神과 氣概를 계승한⁸⁴⁾ 가운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현실인식과 대응자세를 갖추고 국난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역할은 남명학이 실천성을 부각하며 학문적 정체

82) 『松菴實紀』中, 倡義事蹟 附李松巖(魯)龍蛇錄中所記, “金鄭二大將 名位并高 不相差池 而鄭大將參謀 皆其門生 其中如權養之輩 輕儂怪妄 欲隆尊其師 爲義兵首功 而金大將聲威功績 頗出其右 興訛造訛 器器多言 鄭大將移文於金大將 煞有未安之語”.

83) 『宣祖實錄』 권180, 37년 10월 乙亥.

84) 金宇顛은 曹植이 사람을 어떻게 가르쳤는가라는 宣祖의 질문에 博文·窮理는 李滉만 못하지만, 精神과 氣概를 가르쳐 興起한 사람이 많았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宣祖實錄』 권7, 6년 11월 丙午).

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전란이 종식된 이후 남명학파의 정치·사회적 입지가 강화되는 것도 그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2) 吳灑의 南冥·退溪學 융화

고령사람이 경상우도 사람과 더불어 좌도사람을 연결해주는 교량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미 김면이 鄭述와 道義의 관계를 맺으면서 예고되고 있었다. 정구는 처음 조식의 제자인 吳建이 星州教授로 있을 때 金宇顒과 함께 『周易』 등을 배웠으나, 뒤에는 조식을 직접 찾아가 현실의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에 감화를 받고 出處의 大節을 새롭게 다졌다. 이 자리에서 조식은 그의 분명한 出處 의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곧바로 두 사람은 師弟의 교감을 나누었다.⁸⁵⁾ 그러나 정구는 조식을 만나기에 앞서 이미 李滉을 찾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편지로 『心經』을 질의하는 등 이황의 학문방법과 삶의 자세에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德器가 두텁고 실천이 독실한 이황의 풍모와, 器局이 峻整하고 才氣가 豪邁한 조식의 그것을 복합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⁸⁶⁾ 이 때문에 그는 李滉을 따라 배웠고 또 曹植의 문하에 왕래하며 배움으로써 학문이 널리 통하고 才局과 操行이 있게 되었다⁸⁷⁾고 평가 받았던 것이다.

김면과 정구의 관계는 羅以道·朴廷璠·李文龍·李時畱·李澤龍·李見龍 등 고령의 사람들이 그들을 매개로 하여 남명학과 퇴계학의 학풍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령사람은 두 학풍의 수용에만 그치지 않고 分化의 조짐을 보이던 남명학과 퇴계학을 융합하는 복합적 학문체계를 수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도 했다. 고령사람의 그러한 분위

85) 『寒岡全書』下, 年譜, “士君子大節 惟在出處 汝於出處粗有見得 吾心許之也”.
 86) 『寒岡全書』下, 年譜, “李滉 德器渾厚 踐履篤實 工夫純熟 階級分明 學者易以尋入 曹植 器局峻整 才氣豪邁 超然自得 特立獨行 學者難以爲要”.
 87) 『宣祖修正實錄』 권12, 11년 6월 辛巳.

기를 위한 자극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吳濬이었다.

오운은 중종 35년(1540) 9월 28일 咸安의 茅谷里에서 태어난 이래 어린 시절을 주로 이곳에서 보냈다. 그는 6살 때부터 祖父의 슬하에서 배우며 家學을 전수받는데 이어 12세 때 母親의 사망 이후 이황의 숙부 李堦의 딸로서 閨行으로 칭송받고 있던 祖母의 품속에서 자라면서 인격적 감화를 받아⁸⁸⁾ 학문 및 인품의 진전을 추구했다. 그가 경상우도에 거주하며 南冥學의 학풍을 체득하면서도, 경상좌도의 退溪學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여기서 마련되었다.

오운은 19세 되던 해인 명종 13년(1558) 山海亭으로 曹植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다. 당시 조식은 三嘉의 雷龍亭과 鷄伏堂에 머물면서 金海의 講學所인 산해정을 왕래하고 있었다. 오운은 수시로 김해와 삼가를 드나들면서 曹植을 통해 학문적 감화를 받는 한편,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는 안목과 不義와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조식은 명종 10년(1555) 조정에서 丹城縣監을 제수한 것을 계기로 尹元衡을 정점으로 한 勳戚政權이 각종 정치·사회·경제적 폐해현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해 일어난 乙卯倭變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조차 상실한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小人의 척결과 君子의 등용을 촉구하는 사직상소를 올린 적이 있었다.⁸⁹⁾ 그러나 그는 의도와는 달리 상소의 내용 가운데 文定大妃를 '寡婦'로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⁹⁰⁾

조식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훈척정권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며 그것의 극복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가 당시 제자들에게 오랑캐의 침탈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고 벌벌 떨면서 禮物을 주며 무마

88) 『竹編集』 권4, 行蹟 祖妣淑夫人眞城李氏行蹟, “後來眞城一門之言曰 道德則退溪先生存焉 閨行則全義內子爲冠 世以爲知言”

89) 『南冥集』 권2, 疏狀封事 辭免丹城縣監疏.

90) 『明宗實錄』 권19, 10년 11월 辛亥.

하려는 계책이나 내놓는 관료들의 행태나 邊境 침탈의 책임은 묻지 않고 겸손한 말로 공손하게 응대할 것을 주문하는 군주의 처사가 정당한가고 반문하며 올바른 대처방안을 제시할 것을 策問으로 요구한⁹¹⁾ 것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조식의 이러한 자세로 비추어 볼 때 당시 오운은 그에게서 학문적 지식보다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함께 不義를 용인하지 않는 善·惡의 분별적 자세에 대한 감화를 주로 받았을 것으로 짐쳐볼 수 있다.

오운은 조식이 평소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일반적인 時俗에서 멀리 벗어난 측면이 있었다⁹²⁾고 회고했다. 조식은 명종 3년(1548) 고향 三嘉에 鷄伏堂과 雷龍亭을 건립한 이래 이곳에서 자신의 학문체계를 심화하는 한편 독자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을 교육했다. 특히 그는 학문의 목적이 현학적 지식을 얻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는데 있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깊은 사색을 통해 올바른 실천의 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자들에게 주문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운은 조식의 영향을 받아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해석보다는 程·朱의 학문적 논리에 입각한 실천의 방법을 정립하는 데 주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당시 훈척정권이 유발하고 있던 정치·사회·경제적인 각종 모순의 상황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며 타협하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그가 21살 때인 1561년(명종 16) 生員試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大科에 응시하지 않다가 훈척정권이 와해된 이듬해인 1566년(명종 21)에 와서야 비로소 응시하게 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

오운은 조식을 찾아가 배운지 6년 뒤인 명종 19년(1564) 다시 陶山書堂으로 찾아가 李滉의 문하에서 수학하기 시작했다. 당시 오운의 조부인 吳彦毅

91) 『南冥集』 권4, 雜著 擬策問諸生.

92) 『南冥集別集』 권5, 編年 嘉靖 27년(48세), “其叩竭兩端 對症施藥如此…… 吳竹牖曰 先生教人 迥出流俗”.

가 李滉의 숙부 李堉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척의 관계에 있기도 했다. 그가 주로 이황에게서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적 탐구에 주력하며 신뢰를 쌓은 사실은 『陶山及門諸賢錄』이 전하는 그에 대한 평가가 “학문에 힘쓰고 문장에 뛰어났다”⁹³⁾고 한 것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가 이황의 장인인 許瓚의 아들이자 이황의 처남이 되는 許士廉의 사위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당시 이황은 奇大升과 理氣心性 論辨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적 우주론에 근거한 자신의 현실인식과 대응자세를 정립해가고 있었다. 그는 기대승과의 논변을 통해 朱子性理學이 갖는 우주론의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합리적인 出·處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다. 그가 理·氣를 대립적 구조로 파악하며 氣를 소멸대상으로 보는 주자성리학을 새로이 해석하여 서로 따르고 올라탄 관계로 해석한 것도, 出·處를 비롯한 현실대응에 있어 탄력적인 자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吳滉은 이황을 통해 자신에게 엄격하면서도 남에게는 포용적인 外柔內剛의 인품과 함께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철학적 구조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오운이 강직한 자세를 지향하면서도 일정하게 포용성을 발휘함으로써 長者의 모습으로 세태에 물들지 않은 면모를 갖게 되는⁹⁴⁾ 것은 이황의 그러한 영향에 따른 측면이 적지 않았다. 오운이 뒤에 陶山書院에서 趙穆 등이 주도한 『退溪集』의 간행에 이은 『陶山譜』의 편찬에 참여하여 쓴 序文에서 이황의 道德과 文章은 하늘에서 별이 되고 땅에서 삶의 기준이 되었다⁹⁵⁾고 述懷

93) 『陶山及門諸賢錄』 권3, 吳滉, “二十五登先生門 力學能文 早闡科名 歷試中外”

94) 『竹籟集』 附錄下, 記聞錄 權東巖省吾錄, “權陶隱虎臣嘗誡其子弟曰 有長者風 無世俗態 有竹籟吳公滉 吾常倚重之如賓師 爾曹其體念哉”.

95) 『陶山舊譜』天, 眞城李氏族譜序, “又退陶先生道德文章 星斗于天 蒼龜于世 是則關五百之運後 考亭之一人”.

한 것에서 그러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황은 오운과 편지를 교환하면서도 직접 편지를 보내지 못할 경우 손자들이 宜寧을 방문할 때마다 안부를 전하도록 하는⁹⁶⁾ 등 평소 그에 대한 신뢰를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황은 그를 자주 찾지 않은 미안한 마음을 시에 담아 보내는⁹⁷⁾ 등 남다른 애정을 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결국 오운은 조식에게서 不義와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가치분별의 자세를 體得함과 동시에, 이황을 통해 합리적인 현실인식과 대응자세에 대한 철학적 논리를 수용함으로써 南冥學과 退溪學을 관통하는 복합적 학문체계와 함께 현실대응 자세를 확립할 수 있게 된 셈이었다. 곧 그는 남명학을 토대로 모순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실천적 자세를 정립하는 한편, 퇴계학을 통해 실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적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山海堂에 오르고 退陶室에 들어감으로써, 바로 큰 길만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학식은 진실하여 다른 사람의 표준이 되었다”⁹⁸⁾거나, 또,

죽유선생은 남의 존경을 받을 높은 인품과 더불어 웅대한 기상을 겸비하고 있었다. 도량은 커서 마치 雪月을 소매에 넣고 있는 듯했다. 성품은 정성으로 밝게 하여 일관된 길을 걸었다. 일찍이 家學을 전수받은 다음 先正들을 따라서 배웠다. 雷龍堂 앞에서 꼴꼴한 자세로 일관하며 敬義를 준수하고자 했고, 巖棲門 앞에서 눈을 맞으며 서서는 誠敬을 도모하고자 했다. 南·北으로 종유하며 배우면서 스스로 격려한 덕분에 모든 사람이 존경해마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⁹⁹⁾

96) 『退溪書集成』 65세(1565)篇 再與安奇(乙丑 3월 15일)·答安奇(5월 11일)·復答安奇(5월 18일).

97) 『竹編集』 附錄 下, 投贈詩章簡牘 贈吳大遠.

98) 『竹編集』 附錄 上, 賜祭文 士林祭文(趙亨道).

99) 『竹編集』 追補, 神道碑閣上標文.

고 하여 조식과 이황에게서 각각 敬義와 誠敬을 배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의 학문형성의 복합적 양상을 설명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은 그가 말년에 『東史纂要』를 저술할 때 『東國通鑑』·『東國史略』 등의 역사서뿐만 아니라 『退溪集』과 함께 『南冥遺稿』를 참조함으로써¹⁰⁰⁾ 그들의 역사관을 복합적으로 수용한 것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남명학의 실천성과 퇴계학의 논리성을 바탕으로 독자적 세계관을 구축한 오운의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면모는 전란에 대응하는 자세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선조 23년(1590) 광주목사로 재직하던 중 병을 얻은 그는 관직을 버리고 의령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그가 건강을 추스르고 있는 동안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전란 초기부터 영남의 모든 방어망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급기야 宜寧·草溪도 兵禍를 입어 고을 전체가 탕진하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이 닥치자 郭再祐가 4월 22일 처음으로 宜寧에서 義兵을 일으켰다. 그는 私財를 털고 초계 新反倉에 남아 있던 곡식을 가져와 흩어진 군졸들을 새로 규합해 적을 맞을 준비를 갖추었다.

당시 의령에서 요양 중이던 吳灑도 여기에 동조하여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오운의 장인 허사렴의 아버지 허찬은 曠재우의 外叔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의령의 김해 허씨를 매개로 각각 外家와 妻家로 연결되어 인척관계를 형성하고 있기도 했다. 이것이 임진왜란 당시 두 사람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하는 발판이 되었다. 오운은 처가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재를 내어 曠재우가 의병을 규합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¹⁰¹⁾ 그러나 그는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가 병중이기도 했지만 曠재우와의 나이 차이 때문에 지휘에 혼선을 빚지 않기 위한 의도도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曠재우는 성공적인 의병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에서도 金晬가 도

100) 『東史纂要』, 凡例 纂輯諸書.

101) 『龍蛇日記』(李魯), “灑自再祐起義之初 捐財餉軍 至是 益盡心焉”

망친 사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았다. 물론 두 사람의 대립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金誠一과 金沔의 중재에 의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그에 앞서 吳濼의 적극적인 설득과 양보가 전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간과될 수 없다. 곽재우는 김수가 자신을 逆賊으로 몰면서 모함을 하고 있는데다 조정에서조차 자신의 주장이 수용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의병활동을 포기하고 智異山으로 들어가 은거할 마음을 굳혔다. 그는 지리산으로 향하는 길에 吳濼을 찾았다. 그러나 오운은 심정적으로 그에게 동조를 하면서도 유생이 관료를 처단했을 때 나타날 파장을 우려하며 그를 달랬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서 의병의 선봉에 나설 것을 권유하는 한편, 자신도 직접 나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¹⁰²⁾

이에 따라 곽재우를 대장으로 하고 尹鐸을 領將, 朴思齊를 都摠, 吳濼과 李雲長을 收兵將으로 하는 의병진이 다시 구성되어¹⁰³⁾ 본격적인 의병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정3품의 牧使를 역임한 53세의 오운은 유생의 신분으로 12살 年下인 곽재우를 적극 지원함으로써¹⁰⁴⁾ 낙동강 서쪽에서 鼎津 이북에 이르는 지역을 온전하게 방어하는데 적지 않은 공을 세우도록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오운의 지위와 나이를 불문한 파격적 행적은 물론 그가 병중이고 전투경험이 없다는데 연유하는 것이지만, 大義를 위해 사적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대국적 자세는 善·惡의 가치분별에 투철하면서도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그의 합리적인 자세가 발휘된 것이라 하겠다.

이후 오운은 곽재우의 휘하에서 활약하면서 경상도 의병을 지휘하던 招諭使 金誠一의 지시를 받아 召募官으로서 군사 및 군량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명나라 군대의 영접을 주도하는¹⁰⁵⁾

102) 『竹編集』附錄下, 行狀 “郭公再祐 糾合鄉兵 勦捕洛江往來之賊 未幾 以相失於巡察使金曄 將避入頭流山 歷訪公于宜寧 公諭以王人不可犯之義 且獎首先舉義之忠 約與之同事”

103) 『竹編集』解題, 龍蛇倡義錄.

104) 『龍蛇日記』 “吳從招諭 卽日走赴草溪 宜寧既無倖 而宗道亦辭以難爲 以判校吳濼爲召募官 俾與再祐 協心召聚”

등 국난극복을 위한 의병활동에 적지 않은 공적을 남겼다. 김성일은 오운의 그러한 활약을 높이 평가하여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고, 그가 承文院判校에 발탁된데 이어 尙州牧使로 임명되는 발판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전란이 끝난 뒤 오운은 영주에 거주하면서 趙穆 등과 함께 『退溪集』을 편찬한데 이어 眞城李氏의 족보인 『陶山譜』(庚子譜)의 편찬을 주도하며 序文을 쓰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그는 鄭述가 편찬한 『威州誌』의 跋文을 쓰는¹⁰⁶⁾ 한편, 柳成龍과는 懿仁王后의 喪을 맞아 편지로 成服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¹⁰⁷⁾ 등 左·右道 사립들과 교유의 폭을 넓혀나갔다. 그러나 그는 鄭仁弘이 주도하는 남명학파가 『南冥集』을 편찬하면서 李彦迪과 李滉의 학문을 비판하는 跋文을 실는 등 退溪學派와의 갈등을 표면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두 학파의 학문적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역사서의 내용을 축약해 『東史纂要』의 저술에 들어갔다. 그가 『退溪集』과 함께 『南冥遺稿』를 참조하며 역사서를 저술한 것은 결국 우리나라 역사의 체계적 정리라는 목적 외에도, 남명학과 퇴계학을 주축으로 한 사립의 道學的 歷史觀을 정립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그는 자신의 역사서에 대부분의 史略型 역사서들이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관행과는 달리 각종 제도를 정리한 志와 함께 역대 인물의 행적을 상세하게 기록한 列傳을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도덕과 명분의 관점에서 인물들을 평가함으로써 도학적 현실대응 자세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그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다. 『동사찬요』의 편찬은 결과적으로 역사를 통해 도학적 삶의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남명학과 퇴계학이 접목된 세계관이 사립의 세계관으로 정립되는 토대를 구축하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다.

105) 『孤臺日錄』 萬曆 21년(1593) 2월 15일 “吳判校溪 郭草溪(走+日) 金山陰洛 趙丹城 宗道 金學瑞廷龍 成正字安義 共會于郡 以議天兵支持之事 又出通文于右道列邑”

106) 『竹編集』 권3, 跋後 題威州誌後.

107) 『西厓全書』 권, 書 答吳大源溪(庚子).

4. 맺음말

이상 조선시대 고령사림의 동향을 영남사림의 도학적 세계관과 연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金宏弼이 성리학의 우주론 및 인성론의 천착과 더불어 『小學』의 실천을 통해 성리학의 道學化를 선도한 이래 도학은 사림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사림세력은 도학의 동질적 세계관을 확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인식과 대응자세의 차별적 경향으로 인해 분화의 조짐을 보이게 되었다. 徐敬德을 비롯한 曹植·李滉·李珣 등이 각각 花潭學·南冥學·退溪學·栗谷學을 정립하게 되는 것도 그러한 상황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독자적인 도학적 세계관을 정립한 가운데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朱子性理學을 모태로 하면서도 조선의 현실에 접목될 수 있는 세계관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었다.

그것을 계기로 하여 경상도 지방의 사림들은 낙동강을 경계로 하여 右道의 南冥學派와 左道의 退溪學派로 분화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같은 양상은 도학적 세계관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영남사림의 학문 및 정치·사회적 분열과 대립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낙동강 江岸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남명학과 퇴계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고령지역의 사림들에게 그것을 극복할 과제가 부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고령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비옥한 농토로 인해 유학의 학문적 분위기 정착과 재지사족들의 경제·사회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거기다 합천·성주·현풍과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은 다양한 학문을 복합적으로 수용해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었다. 그들이 현풍출신으로 합천에 우거한 적이 있는 김굉필의 도학을 일

적부터 받아들여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배경도 거기에 있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함천에서 발흥한 남명학을 직접 체득할 뿐만 아니라 정인홍 등과의 교류를 통해 경상우도 사림의 보편적 세계관과 보조를 맞추어 나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조식과 이황 사이를 왕래하며 배운 정구 등을 통해 퇴계학의 접목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같이 고령사림들이 남명학의 학풍강화와 더불어 퇴계학과의 융화를 지향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金沔과 吳灑이었다. 고령에 도착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던 김면은 조식을 통해 모순과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是·非분별의 자세를 확립함과 동시에 정인홍·곽재우뿐만 아니라 정구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고령지역 남명학의 정착에 기여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가 임진왜란 당시 고령지역 사림을 주축으로 의병을 규합해 정인홍·곽재우와 연대한 가운데 국난극복에 성공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 그는 의병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두한 현안들을 조언을 통해 해결하며 학문의 동질성을 토대로 한 실천적 자세와 학파적 결속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그들 사이에 전쟁수행과 관련한 시각차가 일정하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통 없이 극복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학통강화를 염두에 둔 행보가 적지 않은 작용을 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오운은 고령지역과 직접적 인연을 맺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들이 고령박씨와의 혼맥을 형성한 것을 계기로 후손들이 정착하면서 연고를 갖게 됨으로써 학문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는 조식에게서 不義와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가치분별의 자세를 體得함과 동시에, 이황을 통해 탄력적 현실인식과 대응자세에 대한 철학적 논리를 수용하며 南冥學과 退溪學을 관통하는 복합적 학문체계 수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물론 여기에는 이황·조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폭넓은 혼맥관계도 작용하고 있었다. 그는 남명학을 토대로 모순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실천적 자세를 정립하는 한편, 퇴계학을

통해 실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적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가 『東史纂要』를 저술하면서 『退溪集』과 함께 『南冥遺稿』를 참조하며 남명학과 퇴계학을 주축으로 한 사림의 道學的 歷史觀을 정립하는 매개가 되었다.

요컨대 고령사림은 영남의 사람들이 남명학 또는 퇴계학을 선택하여 학풍 강화에 나서는 양상과는 달리, 남명학의 토대를 구축하면서도 퇴계학과의 접점을 모색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그들의 역할은 선조에서 광해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두 학파가 심대한 갈등과 대립을 보일 당시에는 부각되지 않았지만, 仁祖反正을 계기로 남명학파의 복인(대북)이 철저한 정치보복을 당한 이후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곧 그것은 퇴계학파의 남인세력이 공론형성을 배경으로 牛栗 文廟從祀 및 服喪論爭을 전개할 당시 남명학파와 다시 연대하여 서인정권을 견제하는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퇴계학파와 남명학파가 동질성을 회복하며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두 학문의 융화를 지향하는 고령사림의 학문적 자세가 개재해 있었다. 고령사림을 주축으로 한 江岸學의 실체와 더불어 그것의 역사적 위상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光海君日記』, 『燃藜室記述』, 『大東野乘』, 『擇里誌』, 『慶尙道邑誌』, 『嶠南誌』,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朱子四書語類』, 『景賢錄』, 『景賢續錄』, 『愚得錄』, 『南冥集』, 『南冥集別集』, 『學統類編』, 『大谷集』, 『松溪實記』, 『來庵集』, 『退溪書集成』, 『退溪集』, 『退溪全書』, 『文峰集』, 『艮齋集』, 『開庵集』, 『茅谿日記』, 『松菴實紀』, 『寒岡集』, 『寒岡全書』, 『竹塢集』, 『忘憂集』, 『鶴峰集』, 『西厓全書』, 『龍蛇日記』, 『東史纂要』, 『陶山舊譜』

한국사연구회, 『한국 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金康植, 『壬辰倭亂과 慶尙右道の 義兵運動』, 해안, 2001.

정재훈, 『조선전기 유교정치사상연구』, 태학사, 2005.

한영우 외, 『21세기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역사, 2005.

尹絲淳, 「寒暄堂의 신비精神」, 『寒暄堂의 生涯와 思想』, 寒暄堂記念事業會, 1989.

鄭鉉在, 「茅谿先生日記解題」, 『경남문화연구』 17, 경상대학교, 1995.

崔錫起, 「忘憂堂 郭再祐의 節義精神」, 『南冥學研究』 6,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6.

薛錫圭, 「16세기 嶺南學派의 政治哲學 形成과 朋黨論」, 『韓國의 哲學』 27,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9.

薛錫圭, 「退溪學의 歷史的 位相」, 『퇴계 단신 5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논문집』, 2001.

權延雄·薛錫圭, 「16세기 退溪學派의 君主聖學論」, 『大丘史學』 67, 대구사학회, 2002.

朴洪甲, 「松菴 金沔의 생애와 활동기반」, 『松菴 金沔의 生涯와 義兵活動』, 고령군·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5.

Abstract

The Academic Tradition of the Yeongnam Area and
the Trend of the Confucian Scholars at Goryeong in the Joseon Dynasty

Sul, Suk-Kyu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identify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Goryeong region from the ideological viewpoint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studies. The region of Goryeong is favored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of beauty and its fertile soil, which provided a conducive atmosphere for Confucian studies, as well as economic and social bases for the local nobility and scholars. Geographically, Goryeong which neighbors Hapcheon, Seongju and Hyeonpung accepted diverse studies in complex ways. The Confucian scholars at Goryeong learned Taoism from Kim Goeingpil, who was from Hyeonpung and resided in Hapcheon. They laid the foundation for Confucian studies. They then learned Nammyeong Studies, which arose from Hapcheon, and kept pace with the universal world view of the Confucian scholars in Gyeongsangudo by associating with Jeong Inhong. They also tried incorporating Toegye Studies through associating Jeong Gu, who shuttled between Jo Sik and Lee Hwang.

As seen above, the Confucian scholars in Goryeong worked towards strengthening Nammyeong Studies and incorporating Toegye Studies. Kim Myeon and Oh Un played a leading part. Kim Myeon, who was native to Goryeong, raised this attitude by clearly distinguishing right from wrong and never compromising with injustice. He kept a close relationship with not only Jeong Inhong and Gwak Jaeu, but also Jeong Gu, and contributed to the settlement of Nammyeong Studies in Goryeong. Oh Un learned from Jo Sik the attitude of clearly distinguishing right from wrong and never compromising with injustice. At the same time, by Lee Hwang, he was taught the philosophical logic for perceiving the reality

and responding to it in a more flexible way. Thus, he provided a foothold for establishing a complex academic system which could apply to both Nammyeong Studies and Toegye Studies.

As a result, unlike the other Confucian scholars in the Yeongnam area who chose either Nammyeong Studies or Toegye Studies, the Confucian scholars in Goryeong both reinforced Nammyeong Studies and tried to incorporate Toegye Studies. After King Injo succeeded the dethroned Gwanghae, Toegye Studies and Nammyeong Studies became similar to each other in a measure and survived, which was attributed to the efforts of the Confucian scholars in Goryeong. They worked towards the fusion of these two academic lines, which led to the real entity and historic place of Gangan Studies in which the Confucian scholars in Goryeong played a leading part.

Key Word

Regional Studies, Taoism, Nammyeong Studies, Toegye Studies, Practicability, Rationality, Gangan Studies

- 논문투고일 : 2007.12.15. 심사시작일 : 2008.01.17. 심사완료일 : 2008.01.27.